

印刷종주국 위상에 걸맞는 종합인쇄 박물관을!!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

인류역사에서 인쇄술의 발명이 지적혁명의 디딤돌이 되었으며 금속활자의 발명은 인류문화를 바꾸어 놓은 전환점이 되었음은 그동안의 연구나 역사적 사실로 온 세계가 인정하는 바이다.

특히 인쇄술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조상들의 지혜와 지식을 다음 세대로 용이하게 전달해 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의 융합과 조화속에 인류문명 및 지식산업을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234년에 고금상정예문 28부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금속활자로 찍었다는 기록이 이규보의 저서 동국이상국집에 실려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실물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1377년 흥덕사에서 간행된 직지의 실물만 가지고도 구텐베르크보다 70여년 앞서 금속활자를 발명, 사용한 것이 입증됨으로써 세계 인쇄종주국의 면모를 확실하게 갖추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선조들의 인쇄술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며 과거의 영예를 미래에 새롭게 꽃 피우는 재도약을 다짐하는 실질적인 움직임에 앞장 서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는 수많은 인쇄박물관이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더 많은 인쇄박물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인쇄종주국인 우리나라에는 옛 인쇄와 현대를 아우르는 종합 인쇄박물관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살리고 인쇄문화를 출발점으로 인

류문화의 중심축을 이루고 세계속에 우리인쇄문화를 더욱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기위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가칭 세계인쇄문화박물관의 설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립을 추진코자 하는 세계인쇄문화박물관은 단순히 인쇄에 관한 옛 것을 수집, 보관, 전시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세계 각국의 관련 자료와 문헌을 수집, 분석하고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연구교육의 중심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박물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 교육적 활동을 강화하며 문화재 애호정신을 높이고 인쇄와 관련된 각종 유물 및 자료를 발굴, 조사 연구하는 동시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세계에 널리 알리면서 관광산업 진흥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박물관의 자립운영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세계인쇄문화박물관을 세우고자 함은 그동안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문화의식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인쇄문화의 중흥이 민족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이다.

이 일에는 인쇄관련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재계, 학계 등 범국민적인 이해의 공감대와 지원 등 전폭적인 힘이 합쳐져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역사 앞에 양심과 사명감의 횃불을 높이 들고 세계인쇄문화박물관 추진에 매진합시다.